

「耽羅圖」와 지명

오창명^{*}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耽羅圖」에 대하여
- III. 「耽羅圖」의 序文에 대하여
- IV. 지명 목록
- V. 지명 표기의 특징
- VI. 마무리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최근에 전모가 공개된 가칭 「耽羅圖」라는 지도와 거기에 나타나는 지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글이다. 가칭 「탐라도」라는 지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지도에 붙어 있는 시문과 지도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지명 목록을 제시함과 아울러 각 지명 표기의 특징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1차적인 목적이다.

II. 「耽羅圖」에 대하여

「耽羅圖」¹⁾는 제주 목사를 지낸 이형상 후손의 종가에 보관되어 있는

*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1) 「耽羅圖」의 실제 사진본은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실장이 제공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한다.

것으로, 전부터 그 존재가 알려졌던 것이다.²⁾ 그러나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실장이 실재 사진본을 공개(KBS 제주방송총국의 2004년 11월 24일 9시 제주뉴스와 제주일보 2004년 11월 25일자 사회면 기사)하면서 그 전모가 자세히 드러났다.

이 지도에는 地圖名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몇 개의 가칭으로 불려왔는데, 필자는 제주의 여러 옛 지도와 구분하기 위해 「耽羅圖」라 가칭한다.

이 지도는 목판 3개를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첫째 판은 序文 성격의 글(제주목, 대정현, 대정현의 지리적인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한 내용) 부분, 둘째 판은 濟州島 지도 부분, 셋째 판은 제주도과 전라남도 사이에 있는 섬 지도 부분으로 되어 있다.³⁾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실장의 말에 의하면, 이 지도는 17세기 말에 제작된 제주지도라고 한다.⁴⁾ 오상학 교수도 “지도에 1678년에 혁파된 동

2) 오상학(2000)에서는 이 지도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북 영천에 있는 이형상의 종가에는 「탐라도(耽羅圖)」 1장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영철, 「병와 이형상 연구」, 한국학연구총서 37, 한국연구원, 36쪽). 이 지도는 목판본으로서 「탐라지도병서」와 유사하게 상하에 지지가 수록되어 있고 가운데에 지도가 그려진 형태이다. 그러나 글의 내용과 지도의 형태는 「탐라지도병서」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지도가 이형상 목사가 소장했던 것이라면 「탐라지도병서」의 저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도로서 현존하는 제주도 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 된다. 종가에 소장된 「탐라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후일 별도의 논고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3) 이 지도의 목판본 체제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1709년에 제작한 「耽羅地圖」이다. 이 지도에는 ‘并序’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보통 「耽羅地圖并序」라 하고 있다. 「耽羅地圖」도 3개의 목판으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판과 셋째 판이 ‘序(서)’로 이루어지고, 둘째 판이 제주도 지도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도를 보통 「耽羅地圖并序」라 하고 있으나, 필자는 지도를 일컬을 때는 「耽羅地圖」라 하고, ‘并序’를 아우를 때는 「耽羅地圖并序」라 하고 있다. 이 「耽羅地圖」와 구분하기 위해 지도명이 없는 제주 고지도를 「耽羅圖」라 부르고 있다.

4) 이상태 실장은 지도의 모양이나 형태와 지도의 바탕을 바탕으로 17세기 말 지도로 추정했다. 곧 이 지도의 제주도 모양은 제주도 옛 지도의 초기 모양인 ‘감자’ 형태와 후기 모양인 ‘고구마’ 모양의 중간 형태이며, 조선 초기와 중기의 지도에 나타나는 지

해방호소 명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그 이후 제작된 17세기 말 지도로 추정할 수 있다. 17세기 이전 제작된 국내 고지도가 극소수인 점을 볼 때 이 지도의 사료 가치는 매우 크다.(제주일보 2004년 11월 25일자 사회면 기사)”고 했다.

위 두 사람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지도의 내용과 지명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필자도 전체적으로 볼 때 「耽羅圖」는 17세기 말 지도, 그것도 1682년 이후부터 1700년 사이에 제작된 지도라는 데 동의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제주목에 속한 방호소 중 하나인 禾北所는 숙종 3년(1677) 윤창형 목사의 계에 따라 숙종 4년(1678)에 세워졌는데,⁵⁾ 이 지도에는 禾北所가 표기되어 있다. 이로 보아 이 지도는 1678년 이후의 지도임을 추정할 수 있다.

둘째는, 이 지도에 붙어있는 서문에 東海所城⁶⁾이 4개의 廢城(三別抄

도의 바탕 무늬가 파도로 표현됐다는 데서 초기 제주 고지도의 형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 모양이 조선 초기에는 '감자' 모양으로 그리고, 후기에는 '고구마' 모양으로 그렸다는 설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5) 담수계의 『증보 탐라지(1953)』에, 화북성은 숙종 4년에 목사 최관이 소속한 것이라 하고, 김봉옥의 『제주통사』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종의 『남사일록』에는 “무오년 봄에 목사 윤창형이 처음 방호소를 설치하였다.(戊午春牧使尹昌亨初設防護所)”고 하였다. 김석익의 『耽羅紀年』에도 숙종 4년 봄에 목사 윤창형이 동해방호소를 철폐하고 모슬진으로 이설하고, 화북진을 설치했다고 했다. 戊午는 숙종 4년(1678)이다. 윤창형은 숙종 2년(1676) 병진 2월에 도입하여 2년이 지난 무오(숙종 4년, 1778) 8월에 제거되고, 최관은 무오 8월에 도입하여 2년이 지난 경진 5월에 병으로 제거했다.

6) 東海所는 원래 東海浦(지금의 월평리 포구) 주변에 설치되었던 방호소이다. 『世宗實錄』(권81, 세종 21년<1430> 2월 壬午)에서도 東海所를 회인할 수 있으므로 지어도 조선 초기부터 防護所로 존재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대정현, 관방)을 보면, “東海防護所[在縣東五十七里]<新增>在縣東四十五里……正德庚午移加內關防于此”라 했다. 곧 동해방해소가 대정현 동쪽 57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47리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正德 庚午年(1510)에는 加內防護所를 이곳으로 옮겼다고 했다.

所築土城, 旌義 古城, 舊西歸城, 東海所城) 중 하나로 나온다. 이로 볼 때 이 지도의 서문은 대정현에 있었던 東海防護所를 없앤 뒤의 내용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동해방호소는 1653년에 쓴 이원진의 『耽羅志』(대정현, 관방)에는 '東海城'과 '東海防護所'로 나오는데, 1679년에 부임한 목사 이증이 쓴 『南槎日錄』에는 '東海廢防護所'로 나온다. 1677년(숙종 3)에 제주목사 尹昌亨이 '대정 毛瑟浦'에 축성하게 해달라고 覆啓하여 허락을 받았는데, 이 기사를 중시하여 이 당시에 東海防護所를 모슬포로 이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도에는 募瑟所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도는 2차 募瑟所가 설치된 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지도에는 당시 폐성인 '東海所, 舊西歸, 古城' 등도 표시되어 있다. 1702년의 『耽羅巡歷圖』, 『漢擊壯圖』이나 1709년의 『耽羅地圖』 등에는 東海所가 '舊東海所' 또는 '舊東海'로 표기되어 있다.

셋째는, 牧馬場에 대한 내용이다. 김상헌의 『南槎錄(1601-1602)』에는 당시 정의현에 國馬 12屯, 대정현에 國馬 5屯, 國馬 33屯 등 50屯이 있다고 했다. 이원진의 『耽羅志』(1563)를 보면, 말 목장이 제주목에 7所 38字, 정의현에 3場 17字, 대정현에 1場 3字 등을 합하여 11場 58字가 있다고 하고, 유형원의 『동국여지지(1656)』에는 "牧場本州凡七所 旌義三所 大靜一所" 등 11소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말 목장이 제주목에 國馬 37屯, 牛 1屯, 정의현에

7) 『新增東國輿地勝覽』(권38, 대정현, 관방)에서 毛瑟浦防護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방호소가 존재했다가 중간에 혁파되었다. 김상헌의 『南槎錄(1601)』을 보면 대정현을 순력하는 과정에서 동해방호소를 거쳐 차귀방호소에 이르는데, 모슬포방호소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이전에 혁파된 것으로 보인다. 李增의 『南槎日錄(1679-1680)』을 보면, 東海廢防護所와 募瑟鎮城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1680년 이전에 2차 모슬진성이 세워졌음을 보여준다. 18세기 쓰인 『제주읍지』와 『탐라지』 등을 보면, 모슬방호소가 1678년에 설치된 것으로 나온다.

國馬 17屯, 牛 1屯, 대정현에 國馬 5屯, 牛 1屯 등을 합하여 62屯(國馬 59屯, 牛 3屯)이 있다고 했다. 같은 시대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이중의 「南槎日錄」에도 정의현에 國馬 17屯, 대정현에 國馬 5屯이 있다고 했다. 이로 보아 「탐라도」는 17세기 말 지도라 할 수 있다.

「耽羅巡歷圖」(1702)의 서문에는 64場, 「南宦博物」(1704)에는 63所가 있다고 했다. 1709년 「耽羅地圖」并序에는 13場이 있을 뿐 字목장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 「탐라지도」를 참고하여 그린 지도라 할 수 있는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에 붙어 있는 '제주목 기사에도 牧場十三內[濟州七 大靜三 旌義三]'와 같이 13개 목장이 있다고 했다.

특히 1709년의 「耽羅地圖」에는 대정현에 毛同場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耽羅圖」와 「耽羅巡歷圖」에는 毛同場이 없고, 그냥 字목장만 나온다. '모동장'은 1705년 대정현 지역에 설치된 목장 이름이다.

한편 「탐라순력도」에는 二所屯馬牧場, 日字屯馬 등과 같이 一所場, 二所場, 屯馬場 등의 용어를 쓰고, 「한라장축」에는 牧一所場, 大二所場, 玄字場 등의 용어를 썼는데,⁸⁾ 「탐라도」에는 그냥 '○字屯馬牧場'으로만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字牧場을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어서, 「탐라도」가 적어도 「탐라순력도」나 「탐라지도」보다는 앞서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목장에 1소장, 2소장 등과 같은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7세기 말이지만, 이 지도에는 이러한 소장(所場) 개념이 쓰이지 않았다.

특히 1704년의 「남환박물」 '誌馬牛'조에 따르면, 당시 삼읍의 목장 63곳 안에 '제주목 제1소(濟州第一所)'에는 '天·地·玄·黃·宇·宙·出'字場과 別牧場인 '天·池'字場 등 8字場이 있었는데, 天·地·玄·黃·宇·宙·出'字場은 지금의 평대리 바닷가 일대에 있었던 左可馬場에

8) 「역주 탐라지」(2002) '제주목, 목장'조를 참조할 것.

있었고, '別天·地'字場과 '黃'字場은 조선 후기의 1소장(지금의 구좌읍 산간)에 있었다. 左可馬浦[좌가맛개] 일대에 있었던 목장의 경우, 「탐라도」에는 '天地玄宇宙出六字屯馬牧場'으로 표기했는데, 「한라장축」에는 '場'으로만 표기하고 「탐라지도」에는 '左可馬場'으로 표기했다. 「한라장축」에 '別牧場'과 '黃字場(黃字牧場)'(이상은 「탐라지도」에 1所場으로 표기된다.)으로 표기된 것은 각각 '別天地兩字屯馬牧場'과 '黃字屯馬牧場'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남도영의 『濟州島牧場史』(2001:205)에는 지금 구좌읍 산간에 1소장을 표시하고 이곳이 조선 전기의 10소장 중 하나라고 했는데, 이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⁹⁾ 이익태의 『知瀛錄』에서 1소장, 2소장 등의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제주도 목장에 1소장, 2소장 등이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말, 곧 1690년대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담수계의 『증보 탐라지』를 보면, 숙종 30년(1704)에 송정규 목사가 계문하여 측량하고 소를 합하여 10소를 정했는데, 1소에서 6소까지는 제주목에, 7소와 8소는 대정현에, 9소와 10소는 정의현에 속했다고 하였다. 이것이 18세기의 10소장에 바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8세기의 10소장이 조선 전기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넷째, 「탐라도」 서문 내용 중의 제주목 관련 기사를 보면, 제주성 안에

9) 남도영의 『濟州島牧場史』(2001:202)에 의하면, 조선 후기에 확인되는 10所場이 조선 초기부터 있었다고 하였다. 곧 「성종실록」(권281, 24년 8월 丁卯)의 “산 중턱 이하의 주위에 10군데의 목장을 설치하였다.(山腰以下周圍設十牧場)”는 기사를 중시하여 10소장이 조선 초기에 설치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기사의 10牧場은 단지 10군데의 목장이라는 뜻이지 조선 후기의 10소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토산)에는 “목장이 4군데인데, 정의와 대정도 같다.(牧場四旌義大靜同)”고 했다.

담수계의 『증보 탐라지』(1953)에는 숙종 30년(1704)에 목사 송정규가 계문하여 築場하고 所를 합하여 10所로 정했다고 했다.

書院이 있다고 했다. 이 서원이 橘林書院이라면, 이 지도는 1682년 이후에 제작된 것이 된다. 굴림서원은 제주목 남문 안(지금의 오현단)에 있었는데, 강희 임술년(1682)에 冲庵 金淨, 圭庵 宋麟壽, 淸陰 金尙憲, 桐溪 鄭蘊, 尤庵 宋時烈 등 5인이 賜額하였다.(18세기 말의 「濟州邑誌」의 壇廟)

다섯째, 果園의 경우도, 이원진 「耽羅志(1653)」에는 35곳으로 나오는데, 「탐라도」에는 39곳으로 나온다. 1702년의 「탐라순력도(1702)」와 「남환박물」 등에는 41곳,¹⁰⁾ 「耽羅地圖(1709)」에는 40곳으로 나온다.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에 붙어 있는 「濟州牧」 기사에도 「果園四十內[濟州二十七 大靜六 旌義七]」라 하여 40곳으로 되어 있다. 시대에 따른 과원의 증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섯째, 「耽羅圖」에는 당시 人居村店이 164리라 했으나, 「耽羅地圖」에는 村店이 150이라 했다. 「南宦博物(1704)」에는 130리라 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이 지도는 1680년대에 만들어진 지도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17세기 말 지도가 되는 것이다.

Ⅲ. 「耽羅圖」의 序文에 대하여

「탐라도」의 위쪽에는 「序文」격의 글이 있다. 다음에 이 서문의 원문을 제시하고, 바로 뒤에 필자의 해석을 제시한다.

<「탐라도」 序文>

島之環海幅員四百八十里 東西一百七十里 南北七十三里 大路周回三百七十八里 水路得便風由廣鵝島 直渡海南館頭九百餘里 由白梁 橫

10) 「남환박물」에 실제 표기된 목장은 41곳인데, 기록으로는 42곳으로 되어 있다.

濟則千有餘里 漢拏橫亘三邑鼎峙 濟州鎮山之北面控制兩縣 旌義居于山之東南隅 大靜居于山之西南陬 防護所九處 分布於要害之地 二十五處燒燧 高築於通望之岳 大小船可泊浦口八十五處之中報變要緊浦頭烟臺三十九 人居村店一百六十四里之間孝子烈女旌門五 合作三十五面 粟儲六倉 果園三十九處 橘柚成林 國馬五十九屯 驛驛滿群 牧羊一棧 畜羔二圈 廢城四處[三別抄所築土城在濟州西三十里 旌義古城在今治東二十五里 舊西歸城在西歸所北五里 東海所城在大靜縣東三十五里]○黑牛三屯

三邑地方城池路程記

濟州牧地方東自龍項浦西至釜浦一百六十七里 北自海際 南至漢拏山白鹿潭四十三里 經路距旌義縣七十里 距大靜縣九十里 距西歸鎮七十二里 ○州之爲城北臨滄海里許 南枕漢拏四十二里 東抵旌義界八十四里 西接大靜界八十三里 石築周回五千四百八十九尺 高十一尺 堞堞四百四 擊臺二十七 東西南三門 南北水口 兩虹門 城中有文廟書院客館兩衙觀德亭望京樓司倉及五果園 ○州屬防護所二處 禾北所在州東十二里 城周六百八尺 高十二尺 東西兩門 ○朝天所在州東二十八里 城周四百二十八尺 高九尺 堞堞二十二 南有一門 ○別防所在州東七十九里 城周二千三百九十尺 高七尺 堞堞一百三十九 擊臺七 東西南三門 城中有倉 ○涯月所在州西四十里 城周五百四十九尺 高八尺 堞堞三十三 南西兩門 ○明月所在州西六十里 城周三千二十尺 高八尺 堞堞一百九十三 擊臺七 東西南三門 城中有倉 ○燧燧十處[紗羅 元堂 西山 笠山 往可在州東 道圓 水山 高內 道內 晚早 在州西] ○浦口四十四處 烟臺十八築 ○二十七面 人居一百十一村[孝子烈女旌門各二] ○果園二十六處[五園在城中 十一園在東 十園在州西] ○國馬三十七屯 牛一屯 羊棧羔圈各一[棧在紗羅岳下 圈在飛揚島中]

大靜縣地方東自羔屯西至西林浦六十五里 南自海際 北至廣藪三十

七里 邑之爲城 東抵旌義界五十五里 西抵大海十里 南至海十里 北接濟州界二十七里 城周四千八百九十尺 高九尺 堞堞一百五十五 擊臺五 東西南三門 城中有倉及果園 ○縣屬防護所二處 遮歸所在縣西北二十二里 距濟州九十五里 城周一千四百六十六尺 高十六尺 東西兩門 ○攀瑟所在縣西十里 距濟州一百十七里 城周三百三十五尺 高八尺 北有一門 ○燧燧五處[龜山 蟻山 貯星 攀瑟 堂山] ○浦口二十一處 烟臺九 ○人居三面二十一村 ○果園六處 ○國馬五屯 牛一屯

旌義縣地方東自五照浦西至孤根山一百三里 南自海際 北至別牧場三十五里 邑之爲城 東抵大海二十八里 西抵大靜界七十五里 南至海十五里 北接濟州界二十里 城周二千九百二十六尺 高九尺 堞堞一百八十一 擊臺十三 東西南三門 城中[有文廟及倉與果園] ○縣屬防護所二處 首山在縣東二十里 距濟州九十九里 城周一千一百六十四尺 高十六尺 東西兩門 ○西歸所在縣西六十五里 城周八百二十五尺 高八尺 堞堞三十三[東西兩門 城內有倉] ○燧燧十處[指尾 城山 首山 獨才 南山 兎山 達山 紫蒲 狐村 三梅陽] ○浦口二十處[烟臺十二] ○人居五面[三十一村 烈女門一] ○果園七處 ○國馬十七屯 牛一屯 羔一圍

<「탐라도」 서문 해석>

섬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의 넓이는 480리이다. 동서가 170리이고, 남북이 73리이다. 큰길을 따라 빙 돈 둘레가 378리이다. 뱃길은 순하게 부는 바람을 만나면 넘거위섬¹¹⁾을 거쳐 곧바로 건너면 해남의 관어

11) 廣鵝島(광야도)는 '넘거위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이 섬은 지금 진리남도 완도군 노화읍에 있는 섬으로, 지도에 따라 '넙도'와 '시넙도', '영도(仍島)와 '시영도(西仍島)'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넙개(넙계)' 또는 '서넙개(서넙계)'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넙도'와 '서넙도'로 불리고 있다. 이 「탐라도」에는 '東西廣鵝島(동서광야도)'로 표기되어 있다. 곧 東廣鵝島와 西廣鵝島로 표기했는데, 東廣鵝島는 지금의 '넙도'를 이르고, '西廣鵝島'는 지금의 '시넙도'를 이룬다.

리¹²⁾에 이르는데 900여 리이다. 흰도¹³⁾를 거쳐서 가로질러 물을 건너면 천여 리가 된다.

한라산이 가로로 뻗어 삼읍¹⁴⁾이 솔밭과 같이 벌여 서 있다. 제주목은 진산(한라산)의 북빈에 있어서 두 현을 억눌리 핍박 못하게 하고 있다. 정의현은 한라산의 동남쪽 모퉁이에 있고 대정현은 한라산 서남쪽 모퉁이에 있다.

방호소 9곳이 적을 막기에는 편리하고 적이 쳐들어오기에는 불리하게 지세가 험한 곳에 널리 퍼져 있다.

25곳의 봉수는 통하여 망보기 좋은 오름에 높이 쌓아 있다. 크고 작은 배가 머무를 수 있는 포구 85곳 중에 변란을 보고하는 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곳의 포구 머리에 연대 39곳을 두었다.

사람이 사는 촌점 164리 중 효자·열녀 정문이 5곳인데, 합하여 35편을 이룬다. 조(곡식)를 쌓아놓은 창고는 6곳이다. 과원은 39곳인데, 귤나무와 유자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루고 있다.

나라에서 경영하는 말 목장은 59둔이고, 빠르게 잘 달리는 말들이 넉넉하게 무리지어 있다. 양을 치는 엽은 우리 1곳이 있고, 염소를 기르는 우리 2곳이 있다.

사용하지 않는 성 4곳이 있다.[삼별초가 쌓은 흙성은 제주성 서쪽 30리에 있다. 정의현의 옛 성은 지금 치소의 동쪽 25리에 있다. 옛 서귀성

12) 海南 籠頭(해남관두)는 당시 해남현에 속했으나, 지금은 전라남도 해남군 관동리에 속한다. 가까이 '관두산'이 있다. 籠頭는 籠頭梁(관두량) 또는 籠頭浦(관두포)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籠頭는 '관머리'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籠頭梁은 '관머릿도·관머릿들'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籠頭浦는 '관머릿개'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13) 지도를 보면 白梁은 보길도와 소안도에 표기되어 있다. 이로 보아, 지금 보길도 서쪽 끝에 '백도리'라는 마을과 '선백도'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일대를 일컬었던 것으로 보인다. 白梁은 '흰도' 또는 '백도'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백도리 서남쪽 바닷가에 '우암 송시열의 글썬 바위(송시열글썬암각)'가 있다.

14) 三邑(삼읍)은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을 이룬다.

은 서귀방호소 북쪽 5리에 있다. 동해방호소는 대정현 동쪽 35리에 있다.] 검은 소 키우는 곳 3둔이 있다.

삼읍 지방 성지 노정기¹⁵⁾

제주목 지방은 동쪽의 용목잇개¹⁶⁾에서부터 서쪽의 두뭇개¹⁷⁾에 이르기까지 167리이다. 북쪽 바닷가에서부터 남쪽 한라산 백록담에 이르기까지 거리가 43리이다. 지나는 길의 경우, 정의현까지 거리가 70리이고, 대정현까지 거리가 90리이고, 서귀진까지 거리가 72리이다.

제주는 성을 들렀는데, 북쪽은 넓고 큰 바다가 임한 곳까지 거리가 10리쯤 된다. 남쪽은 한라산을 배개 삼았는데 거리가 42리가 된다. 동쪽은 정의현 경계에 다다르는데 84리가 되고, 서쪽은 정의현 경계에 접했는데, 83리가 된다.

(제주성의) 돌로 쌓은 옹벽의 둘레가 5,489자이고, 높이가 11자이다. 타구와 성가퀴가 404곳이고, 격대가 27곳이다. 성의 동쪽, 서쪽, 남쪽 등에 3개의 문이 있다. 남수구와 북수구가 있고, 두 개의 홍예문이 있다. 성 가운데에 문묘와 서원, 객관, 양아, 관덕정, 망경루, 사창 및 5곳의 과원이 있다.

제주성 소속 방호소는 2곳이다. 화북방호소는 제주성 동쪽 12리에 있다. 성 둘레는 608자이고 높이가 12자이다. 남쪽에 문 하나가 있다. 조천 방호소는 제주성 동쪽 28리에 있다. 성 둘레가 428자이고, 높이가 9자이

15) 路程記(노정기)는 가야 할 길이나 장소의 경로와 거리, 순서와 이수(里數), 형편(形便) 따위를 적은 기록(記錄)을 이른다.

16) 龍項浦는 '용목잇개'의 한자 차용 표기로, 지금 종널리와 허도리 경계에 있는 포구를 이른다. 용의 목과 같이 길게 뻗 개라는 데서 붙인 것인데, 지금 민간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17) 釜浦(부포)는 '두뭇개' 또는 '두뭇개'의 한자 차용 표기로, 지금 한경면 두모리 포구를 이른다. 이후에는 주로 頭毛浦(두모포)로 표기된다.

다. 타구와 성가퀴가 22곳이고, 남쪽에 문 하나가 있다.

별방방호소는 제주성 동쪽 79리에 있다. 성 둘레가 2,390자이고, 높이가 7자이다. 타구와 성가퀴가 139곳이고 격대가 7곳이다. 동쪽과 서쪽, 남쪽 등에 3개의 문이 있다. 성 가운데에 창고가 있다.

에월방호소는 제주성 서쪽 40리에 있다. 성 둘레가 549자이고, 높이가 8자이다. 타구와 성가퀴가 33곳이고, 동쪽과 서쪽 등에 2개의 문이 있다.

명월방호소는 제주성 서쪽 60리에 있다. 성 둘레가 3,020자이고, 높이가 8자이다. 타구와 성가퀴가 193곳이고, 격대가 7곳이다. 동쪽과 서쪽, 남쪽 등에 3개의 문이 있다. 성 가운데에 창고가 있다.

봉수는 10곳이다.[사라봉수, 원당봉수, 서모봉수, 입산봉수, 왕가봉수 등은 제주성 동쪽에 있다. 도두리봉수, 물매봉수, 고내봉수, 도내미봉수, 느조리봉수 등은 제주성 서쪽에 있다.]

포구는 44곳이고, 연대는 18곳이다.

27면이 있는데, 사람이 사는 촌이 111곳이다.[효자와 열녀의 정문은 각 2곳이 있다.]

과원은 26곳이다.[5곳의 과원은 제주성 안에 있다. 11곳의 과원은 제주성 동쪽에 있다. 10곳의 과원은 제주성 서쪽에 있다.]

나라에서 경영하는 말 목장이 37둔이 있고, 소 목장은 1둔이 있다. 양을 치는 우리와 염소를 치는 우리가 각 1곳이다.[양 치는 우리는 사라옴 아래에 있고, 염소 우리는 비양도 가운데에 있다.]

대정현 지방은 동쪽 염둔¹⁸⁾에서부터 서쪽 서림개¹⁹⁾까지 65리이다. 남

18) 羔屯(고둔)은 '염둔'의 한자 차용 표기로, 지금 민간에서는 '염둔'이라고 부른다. 지금 강정동에 속한다. 이곳에 염소를 치는 우리가 있었다는 데서 동네 이름도 '염둔'이라 한 것으로 추정된다. 羔屯은 '고둔'으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특히 이곳을 절대로 '고둔'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 당시에는 이곳을 염소를 치는 우리로 이용하지 않고, 비양도에 염소 우리가 있었다.

쪽 바닷가에서부터 북쪽 넓은곳²⁰⁾까지 거리가 37리이다.

읍은 성을 들렀는데, 동쪽은 정의현 경계에 다다르기까지 거리가 55리가 되고, 서쪽은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거리가 10리가 된다. 남쪽으로 바다에 이르기까지 거리가 10리이고, 북쪽으로 제주목 경계에 접하는 곳까지 거리가 27리가 된다. 성 둘레는 4,890자이고, 높이는 9자이다. 타구와 성가퀴가 155곳이고 격대가 5곳이다. 동쪽과 서쪽, 남쪽 등에 3개의 문이 있다. 성 가운데에 창고와 과원이 있다.

대정현 소속 방호소가 2곳이다. 제주성까지 거리가 95리가 된다. 차귀 방호소는 대정현성 서북쪽 22리의 거리에 있다. 성 둘레가 1,466자이고, 높이가 16자이다. 동쪽과 서쪽 등에 2개의 문이 있다. 모슬포방호소는 대정현 서쪽 10리에 있다. 제주성까지 거리가 117리이다. 성 둘레가 335자이고, 높이가 8자이다. 북쪽에 문 1개가 있다.

붕수 5곳이 있다.[구산붕수, 굴메붕수, 저벼리붕수, 모슬개붕수, 당산붕수] 포구가 21곳이고 연대가 9곳이다. 사람 사는 곳이 3면 21촌이다. 과원 6곳이 있다. 국가가 경영하는 말 목장은 5둔이 있고, 소 목장은 1둔이 있다.

정의현 지방은 동쪽 오졸개²¹⁾에서부터 서쪽 고근산²²⁾까지 거리가 103리이다. 남쪽 바닷가에서부터 북쪽 별목장²³⁾까지 거리가 35리이다.

19) 西林浦(서림포)는 '서림개'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지금 내정읍 일대 1리에 속한다. 지금 민간에서 '서림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포구에서 솟아나는 물을 '서림물'이라 하는 데서 '서림'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포구는 주로 '텃개'라 한다.

20) 廣截는 '넓은곳'의 한자 차용 표기로, 지금 안덕면 광평리 일대에 있었던 숲 이름이다. 지금 민간에서 '넓은곳'이라는 이름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21) 五照浦(오조포)는 '오졸개'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지금 오조리 포구를 이른다.

22) 孤根山(고근산)은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오름을 이른다. 당시 이 오름을 경계로 동쪽은 정의현, 서쪽은 대정현이라 했다.

23) 別牧場(별목장)은 당시 제주목에 있었던 別天字(별천자)·別地字(별지자)의 둔마 목장을 이른다. 이 목장의 남쪽 끝이 정의현과 경계를 이루었다.

읍은 성을 둘렀는데, 동쪽은 큰 바다까지 거리가 28리가 되고, 서쪽은 대정현 경계에 다다르는데 75리가 된다. 남쪽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15리가 되고, 북쪽은 제주목 경계에 다다르는데 거리가 20리가 된다. 성 둘레가 2,926자이고 높이가 9자이다. 타구와 성가퀴가 181곳이고 격대가 13 곳이다. 동쪽과 서쪽, 남쪽 등에 3개의 문이 있다. 성 가운데에 문묘와 창고, 과원이 있다.

정의현에 속한 방호소가 2곳이다. 수산방호소는 정의현 동쪽 20리에 있다. 제주성까지 거리가 99리이다. 성 둘레가 1,164자이고 높이가 16자이다. 동쪽과 서쪽 등에 2개의 문이 있다. 서귀방호소는 정의현 서쪽 65리에 있다. 성 둘레가 825자이고 높이가 8자이다. 타구와 성가퀴가 33곳이다.[동쪽과 서쪽 등에 2개의 문이 있다. 성 안에 창고가 있다.]

봉수 10곳이 있다.[지미봉수, 성산봉수, 물메봉수, 독재봉수, 남산봉수, 토산봉수, 달산봉수, 자포봉수, 호촌봉수, 삼매양봉수]

포구가 25곳이다.[연대가 12곳이다.] 사람 사는 곳이 5면 31촌인데, 열녀문 하나가 있다. 과원이 7곳이다. 국가가 경영하는 말 목장 17둔이 있고, 소 목장 1둔, 염소 우리 1곳이 있다.

IV. 지명 목록

1. 개(浦·浦口)

‘개’는 보통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을 이른다. 제주에서는 대개 바다에서 물 쪽으로 움푹 팬 곳을 이르는데, ‘배가 드나드는 어귀’인 ‘포구(浦口)’와 큰 구별 없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의 序文에는 제주목의 포구 44곳, 대정현의 포구 21곳, 정의현의 포구 20곳 등 85곳이 있다고 했다. 그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목 포구 44곳

龍項浦, 別防浦, 浦頭浦, 佐改馬浦, 於等浦, 無注浦, 松浦, 深浦, 迎登浦, 邊幕浦, 北浦, 咸德浦, 倭浦, 館浦, 新村浦, 所佗浦, 別梁, 古老浦, 健入浦, 伐浪浦, 大瀆浦, 修浦, 泥浦, 道園浦, 潮貢浦, 藻腐浦, 君郎浦, 嚴莊浦, 南頭浦, 高內浦, 涯月浦, 郭支浦, 飯德浦, 牛池浦, 潛水浦, 馬頭浦, 瓮浦, 排輪浦, 元龍浦, 板浦, 釜浦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포구는 위와 같이 41개이다. 서문의 “제주목 지방은 동쪽의 용목잇개에서부터 서쪽의 두뭇개에 이르기까지 167리이다.(濟州牧地方東自龍項浦西至釜浦一百六十七里)”고 한 기록을 중시하여, 지도를 통하여 龍項浦에서 釜浦까지 확인한 포구 수는 41개이다. 후대의 지도와 대조해 볼 때, 可沙村과 加沙村, 毛瑟村, 俠才村으로 표기된 4개의 마을 포구가 지도에 누락되었다. 이들 마을은 모두 포구를 가진 마을인데, 지도에 표기되지 않았다. 이들이 모두 표기된다면 포구의 수가 45개로, 1개가 늘어나게 된다.

대정현 포구 21곳

塞水浦, 江汀浦, 川五里浦, 大浦, 星川浦, 唐浦, 狍川浦, 山房浦, 今勿路浦, 松岳浦, 深浦, 行魚浦, 攀瑟浦, 亂德浦, 西林浦, 大也水浦, 蛇鬼浦, 牛頭浦, 友浦, 松浦, 蕨浦

정의현 포구 20곳

頭遠浦, 終達浦, 力石浦, 五照浦, 渭陽浦, 俠才浦, 迎婚浦, 末等浦, 分入浦, 川尾浦, 堂浦, 所馬老浦, 兎山浦, 伐浦, 金老浦, 又尾浦, 狐村浦, 甫木浦, 西歸浦, 法閑浦

2. 마을(人居村店)

이 지도에는 사람이 사는 마을을 人居村店으로 표현하고, 몇 개의 촌

이 있다고 하고 있다. 실제 표기에서는 村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里로 표기된 곳도 있다. 村과 里의 구별이 있었는지,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서문에 “人居村店一百六十四里”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당시에 村과 里를 구분하여 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왜 일부의 마을은 里로 표기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 지도를 보면, 제주목에 27면 111촌, 대정현에 3면 21촌, 정의현에 5면 31촌 등 35면 164촌이 있었다. 35면이 있다고 했는데 이 지도에서 35면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을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주목의 111촌

別防村, 敦義里, 細花村, 浦頭村, 坪垆村, 猫有村, 於等浦里, 無注村, 金寧里, 今勿乞村, 草菴村, 松堂里, 橋來村, 普門村, 邊幕村, 北浦村, 咸德里, 倭浦村, 瀾池村, 先乞村, 大乞村, 臥乎山里, 朝天館里, 新村里, 泉味村, 細草村, 孝友里, 元堂村, 所乞村, 地久村, 每敦地里, 道連坪村, 可沙村, 別梁村, 居老村, 夫祿里, 無永川村, 嘉良村, 山底村, 月老村, 別羅花里, 仁多羅村, 三義讓村, 竹城村, 良多時村, 乞馬老村, 延老村, 求好音村, 我羅豪村, 道路老村, 所隱道村, 五等生里, 大川外里, 修浦村, 泥浦村, 多好村, 月羅村, 吾羅好村, 道好老村, 道內山里, 延洞村, 老兄村, 海安村, 伊生村, 月郎花村, 廣坪村, 五等弄里, 加沙村, 道圓村, 都近川里, 紆羅村, 光靈村, 有信里, 感恩德村, 流水菴村, 牛路村, 缸破村, 貴日里, 君郎村, 水山村, 嚴莊村, 長田村, 加樂村, 高內里, 納邑村, 涯月村, 於音非里, 夫面村, 郭支里, 毛瑟村, 歸德里, 塞池村, 道內山里, 常時舍村, 立石村, 大林村, 潛水村, 召隱貴村, 鎮近村, 牛屯村, 皮文村, 黑岳村, 水流村, 獨浦村, 俠才村, 排給村, 板浦里, 釜浦村, 堂旨村, 造乎水村

위 목록의 마을 수는 110개이다. 여기에 빠진 마을 중 우선 눈에 띄는 것은 一徒村, 二徒村, 三徒村 등을 일컫는 大村인데, 大村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확실하지 않다. 한편 塞池村은 다른 고문헌이나 고지도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정현 21촌

羔屯村, 塞水村, 江汀村, 石宋村, 岳洞村, 中文村, 大浦村, 猓來村, 塞達村, 紺山村, 自丹村, 狍川村, 今勿路村, 舉頭村, 摹瑟村, 邑外村, 亂德村, 商院村, 日課村, 鎮外村, 敦浦農戶, 友浦漁戶

지도상의 대정현 마을은 20촌이 나오는데, 敦浦農戶와 友浦漁戶를 별개의 마을로 계산하면 22개 마을이 된다. 특히 舉頭村은 다른 고문헌이나 고지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마을이다.

정의현 31촌

終達村, 力石村, 五照村, 古城村, 首山村, 花前村, 迎婚村, 難野村, 末等村, 臥岡村, 川邊村, 邑外村, 弓山村, 標立村, 細花村, 橡岳村, 兎山村, 安坐村, 衣貴村, 水望村, 夫未川村, 叉尾村, 狐村, 牛屯村, 南木村, 上坪村, 西歸村, 洪墟村, 好古木村, 法閑村, 伐浦 魚鹽戶

지도상의 정의현 마을은 30개로 표기되는데 伐浦 魚鹽戶를 합해야 31촌이 된다.

3. 山岳

산악명의 경우, 지도의 서문에 개수를 명기하지 않았다.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산악명은 제주목 35개, 대정현 17개, 정의현 23개 등 75개다.

제주목 산악

往可岳, 大郎秀岳, 高岳, 防下岳, 堂岳, 屯止岳, 笠山, 高山岳, 西山, 夜漢岳, 盤凝岳, 時連岳, 紗帽岳, 明道岳, 奉蓋岳, 元堂岳, 紗羅岳, 三義讓岳, 野

來岳, 獐遜岳, 御乘生岳, 巨門岳, 道內岳, 道圓岳, 極落岳, 感恩岳, 水山, 高內岳, 郭岳, 曉星岳, 黑岳, 道內岳, 皮文岳, 晚早岳, 板浦岳

대정현 산악

孤根山, 龜山岳, 牛夫老岳, 蟻山, 山房, 竝岳, Y岳, 井水岳, 仍邑居岳, 草岳, 箆山, 松岳山, 貯星岳, 皋瑟岳, 龍木岳, 高丘山, 堂山

정의현 산악

指尾山, 斗山, 城山, 夜岳, 首山, 防下岳, 瀛洲山, 成佛岳, 鹿山, 多羅非岳, 迷止岳, 所乞岳, 獨才岳, 南山, 達山, 甲先岳, 兎山, 屏花岳, 紫瀟岳, 靈泉岳, 狐村岳, 葛岳, 三梅陽岳

4.烽燧와 烟臺

서문을 보면, 제주목 봉수 10곳과 연대 18곳, 대정현 봉수 5곳과 연대 9곳, 정의현 봉수 10곳과 연대 12곳 등 봉수가 25곳, 연대가 39곳이라 했다. 봉수 25곳의 이름은 모두 표기했으나, 연대는 표시를 했지만 이름은 표기하지 않았다.

그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주목 봉수

往可望, 笠山望, 西山望, 元堂望, 紗羅望, 道圓望, 水山望, 高內望, 道內望, 晚早望

대정현 봉수

龜山望, 蟻山望, 貯星望, 皋瑟望, 堂山望

정의현 봉수

指尾望, 城山望, 首山望, 獨才望, 南山望, 達山望, 兎山望, 紫瀟望, 狐村望, 三梅陽望

5. 果園

서문을 보면, 제주목 과원 26곳, 대정현 과원 6곳, 정의현 과원 7곳 등 39곳에 과원이 있었다.

제주목 과원

제주성 안 5곳, 猫有村果園, 青桐果園, 金寧里果園, 北浦村果園, 咸德里果園, 瀟池村果園, 先佉村果園, 新村里果園, 小林果園, 延老村果園, 老兄村果園, 海安村果園, 德泉果園, 龍洞果園, 紆蘿村果園, 光靈村果園, 夫面村果園, 月溪果園, 文建果園, 板舍果園

대정현 과원

대정현성 안 1곳, 羔屯村果園, 法華果園, Y岳果園, 洞水果園, 暗林果園

정의현 과원

정의현성 안 1곳, 亭子果園, 獨鶴果園, 上凹果園, 牛田果園, 禁物果園, 元通果園

6. 읍성 및 防護所, 폐성

당시 읍성은 제주목성, 대정현성, 정의현성 등 3곳이고, 운용하는 防護所는 제주목에 5곳, 대정현에 2곳, 정의현에 2곳 등 9곳이 있었다. 廢城은 三別抄所築土城, 旌義古城, 舊西歸城, 東海所城 등 4곳이 있었다.

제주목 방호소

別防所, 朝天所, 禾北所, 涯月所, 明月所

대정현 방호소

幕瑟所, 遮歸所

정의현 방호소
首山所 西歸所

7. 꽃(藪), 숲(林)

당시 오늘날의 '숲'이나 '수풀'에 대응하는 '꽃'은 藪(수)로 표기했는데, 지도에도 여러 곳에 藪를 표기하였다. 그런데 꽃 이름을 지도에 표기한 것은 제주목의 尓尔藪, 金寧藪, 竿藪, 楮木藪, 未佻藪 등 5곳, 대정현의 廣藪, 螺藪, 暗林 등 3곳을 합해서 8곳이다.

'숲'에 대응하는 '술'도 쓰이는데, '술'은 '林'으로 표기되었다.

尓尔藪, 金寧藪, 竿藪, 楮木藪, 未佻藪
廣藪, 螺藪, 暗林

8. 島[섬] · 嶼[여]

'섬'은 島로 표기하고, 밀물 때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다가 썰물 때 드러나는 바위 따위를 이르는 '여'는 嶼로 표기하였다.

'섬'은 제주목의 구역에서 牛島, 飛揚島, 楸子島, 斜鼠島, 東餘鼠島, 大化奪, 小化奪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대정현 구역에서 兄弟島, 盖波島, 摩蘿島, 竹島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현 구역에서는 知歸島, 森島, 衣脫島, 文島, 草島, 虎島, 雛島 등을 확인할 수 있다.

牛島, 飛揚島, 楸子島, 斜鼠島, 東餘鼠島, 大化奪, 小化奪, 遊女島, 草蘭島
兄弟島, 盖波島, 摩蘿島, 竹島
知歸島, 森島, 衣脫島, 文島, 草島, 虎島, 雛島

'여'는 제주목 구역에서 多來嶼 1곳만 표기되었다.

9. 굴(穴·窟)

굴(窟)은 땅이나 바위가 안으로 깊숙이 패 들어간 곳을 이른다. 穴로 표기된 굴은 조그마한 굴을 일컫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에서 확인되는 굴인 경우는 제주목의 경우 牟興穴(지금의 삼성혈), 龍生窟(지금의 김녕사굴)만 표기했다.

바닷가에 있는 굴은 우도의 魚龍窟(지금의 돌그린안굴), 별도봉 밑의 龜龍窟 정도만 표기했고, 당산봉 밑에 있는 굴은 這生門(저생문: 저성문·저성문)으로 표기했다.

10. 소(潭·淵·湫)

‘소’는 潭으로 표기했는데, ‘못’보다는 물이 깊게 권 곳을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淵으로 표기된 ‘소’ 또는 ‘못’이 있는데, 潭보다는 물이 얇게 권 곳을 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湫로 표기된 ‘소’도 있는데, 대개 ‘늪’과 비슷한 곳을 이른 것으로 보인다. 潭과 구별 없이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白鹿潭, 翠屏潭, 天帝潭, 正方淵, 天池淵, 長兀湫

11. 말 목장(馬牧場)

이 지도를 보면 말 목장이 字屯으로 표기되었을 뿐 지명을 이용하여 목장명으로 쓰지는 않았다. 지명으로 나오지 않지만 참고로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마 50둔 중 제주목 국마가 37둔, 대정현 국마가 5둔, 정의현 국마가 17둔이었다. 이외에 대정현과 제주목 산간에는 따로 山馬場이 있었다.

제주목 37둔

天地玄宇宙出六字屯馬牧場, 別天地兩字屯馬牧場, 黃字屯馬牧場, 洪荒

月盈戾五字屯馬牧場, 日字屯馬牧場, 致雨路結爲五字屯馬牧場, 宿麗兩字屯馬牧場, 張寒來暑往秋收冬藏閏十字屯馬牧場, 霜金生三字屯馬牧場

내정현 5둔

黃字屯馬牧場, 玄字屯馬牧場, 宇字屯馬牧場, 別玄字屯馬牧場, 列字屯馬牧場

정의현 17둔

李薰海河淡龍師火八字屯馬牧場, 芥鱗潛翔四字屯馬牧場, 奈羽兩字屯馬牧場, 榮重鹹三字屯馬牧場

12. 기타

기타 지명으로는 제주목의 龍頭[용머리], 정의현의 大畚[하논] 등이 표기되었다.

다음과 같이 지명이 혼합된 절과 사당[祠], 지명이 혼합되지 않은 절과 사당, 누정 등도 일부 표기되어 있다.

제주목 구역에 社稷, 下壇, 廣壤祠, 演武亭, 星老祠, 萬水寺, 川外祠, 城隍祠 등이 표기되어 있다.

孝子門은 金寧里 金秤孝子門, 光靈村 秦大石孝子門 등이 표기되고, 烈女門은 新村里 國只烈女門, 郭支里 天德烈女門, 衣貴里 鄭氏烈女門 등이 표기되었다.

V. 지명 표기의 특징

지명은 고유어든 한자어든 전부 요소(또는 전접 요소)와 후부 요소로 나뉜다. 그런데 지명에 따라 전부 요소가 원래 후부 요소였던 것도 있어

서, 전부 요소와 후부 요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가령 '장밭' 일대에 형성된 마을을 '장밭마을' 또는 '장밭마을'이라 한다. '장밭'의 경우 한자 차용 표기로 長田으로 표기한다. 이때는 '-밭[田]'이 지명 후부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마을을 뜻하는 村이나 里가 덧붙어 長田村이나 長田里가 된다면 지명 후부 요소는 村이나 里가 될 수 밖에 없다. '통물과원'의 경우가 마찬가지다. 원래 '통물'이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그곳에 과원을 설치하게 되면 '통물과원'이 되는 것이다. 한자 차용 표기도 마찬가지다. '통물'은 洞水로 표기하고, '통물과원'은 洞水果園으로 표기하였다. 이런 경우 長田村과 洞水果園의 표기를 중시하게 되면 지명 후부 요소는 村과 果園이 되고, 나머지는 지명 전부 요소가 된다. 이 지도에서 확인되는 제주 지명의 후부 요소는 대부분 자연 지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애[浦]: 용머릿-개[龍項浦], 두뭇-개·두뭇-개[釜浦], 심짚-개[力石浦], 갯물-개[塞水浦], 큰-개[大浦], 지픈-개[深浦], 무주-애[無注浦] 등.

-마을·마을[村·里]: 궤-마을[猫有村], 새미-마을[泉味村], 도내미-마을[道內山里] 등.

-오름[岳]: 검은-오름[巨門岳], 노로손이-오름[獐遜岳], 새빨-오름·새빌-오름[曉星岳] 등.

-미·메·모[山]: 물-메·물-미[水山], 서모-오름[西山]

-곶[藪]: 집녕-곶·김녕-곶[金寧藪], 우진-곶[筍藪], 닥남-곶[楮木藪], 머흘-곶[末仵藪], 구제가-곶[螺藪] 등.

-숲[林]: 어둔-숲[暗林]

-섬[島]: 쇠-섬·소-섬[牛島], 비양-섬[飛揚島], 문-섬[文島], 범-섬[虎島], 새끼-섬[雛島], 숲-섬[森島], 짓구-섬[知歸島] 등.

-여[磯]: 다래-여[多來磯]

-소[潭·淵·湫]: 정모-소[正方淵], 천지-소[天池淵], 천제-소[天帝潭] 등.

-굴[穴·窟]: 용난-굴[龍生窟]

‘-개’는 음운 변화로 인해 ‘-애’로도 실현되는데도 ‘浦’로 표기되었다. ‘무주애’를 無注浦로 표기한 것이 그 예다.

白鹿潭은 ‘백록소’ 정도로 불리던 고유어를 한자로 차용 표기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한자어식 이름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白鹿潭은 ‘백록담’의 표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正方淵은 민간에 남아 있는 ‘정무시’라는 음성형을 고려할 때 ‘정모소’라는 고유어를 차차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유어 지명의 후부 요소가 생략되어 불리거나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龍頭는 고유어 ‘용머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대개 고유어로는 ‘용머리바우’로 실현되고, 한자 차용 표기로는 龍頭岩·龍頭巖[용머리바우]으로 표기되는 것인데, 표기 과정에서 岩·巖을 생략하여 龍頭로만 표기되기도 한다.

다음의 지명 후부 요소들은 한자어로 이루어진 것인데, 인공적인 지명이라 할 수 있다.

- 목(牧): 제주-목(濟州牧)
- 현(縣): 대정-현(大靜縣), 정의-현(旌義縣)
- 소(所): 별방-소(別防所), 조천-소(朝天所), 화북-소(禾北所) 등.
- 망(望): 왕개-망[往可望], 입산-망[笠山望], 서모-망[西山望], 원당-망[元堂望] 등.
- 연대(烟臺)
- 과원(果園): 깨므슬-과원[猫有村果園], 고인못므을-과원[瀾池村果園], 덕지물-과원[德泉果園] 등.
- 농호(農戶): 뉘개-농호[敦浦農戶]
- 어호(漁戶): 벗개-어호[友浦漁戶]
- 염호(鹽戶): 필개-염호[伐浦鹽戶]

지명의 전부 요소는 명사로 이루어진 것,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형으로

이루어진 것, 관형사로 이루어진 것, 복합어로 이루어진 것, 복합어의 관형형으로 이루어진 것 등이 있다.

명사로 이루어진 것: 궤-믈[猫有村], 김녕-믈·김녕-믈[金寧里], 죽성-믈[竹城村], 당-오름[堂岳], 세미-믈[泉味村]

동사와 형용사의 관형형으로 이루어진 것: 검은-오름[巨門岳], 금울-오름[黑岳], 감은-오름[感恩岳], 큰-개[大浦], 노픈-오름[高岳]

복합어로 이루어진 것: 물메-믈·물미-믈[水山村], 금울홀-믈[今勿乞村], 한홀-믈[大乞村], 쇠둔-믈[牛屯村], 오름골-믈[岳洞村]

복합어의 관형형으로 이루어진 것: 궤살미-오름[高山岳], 누온미-믈[臥平山里], 선홀-믈[先乞村], 도랑꽃-믈[月郎花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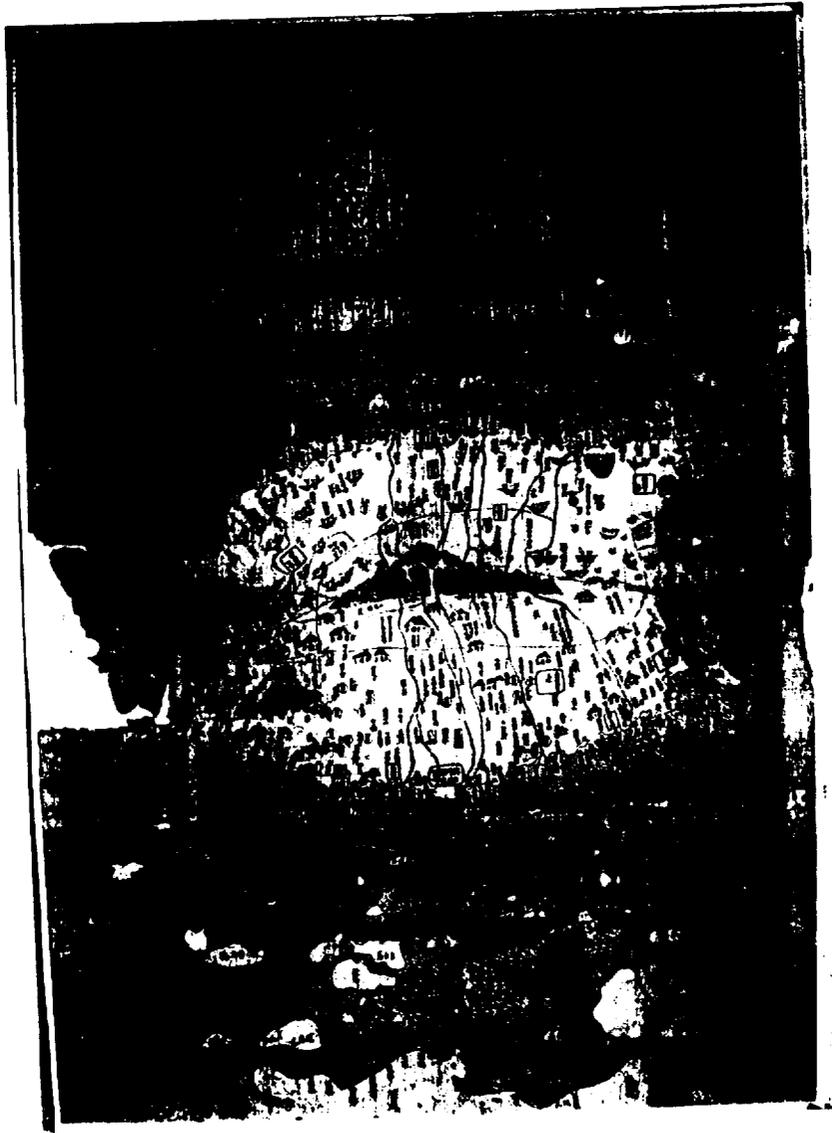
「탐라도」의 지명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별도로 발표하고자 한다.

VI. 마무리

지금까지 「탐라도」가 17세기 말 지도임을 알아보고, 이 지도에서 확인되는 제주 지명을 목록화 하고 지명의 후부 요소 특징과 지명의 어구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각 지명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별도로 대신한다.

주제어

탐라도, 제주지명, 한자 차용 표기



(그림 1) 이형상 종가에 보관되어 있는 <탐라도>
세로 146cm × 가로 106cm. 목판본.

참고문헌

- 강영봉·오창명(2003), "제주도 고문서의 지명 연구", 『지명학』 9집, 한국지명학회.
- 강창룡 외 8인(2002), 『역주 탐라지』, 도서출판 푸른역사.
- 고광민(2003), 『제주도 포구 연구: 역사·민속학적 접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남도영(2001), 『제주도목장사』, 마문화연구총서 V,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담수계(1953), 『증보 탐라지』.
- 오상학(2000), "『탐라순력도』의 지도학적 가치와 의의",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 시·탐라순력도연구회.
- 오창명(1995), "조선 전기 이두의 국어사적 연구: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1996), "제주도 지명 표기의 연구: 조선 후기 고문서의 자료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6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_____(1997), "제주도 마을[洞里]과 山岳 이름의 종합적 연구", 『탐라문화』 18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_____(1997), "지명의 차자 표기에 대한 해독: 제주 지역 오름 이름의 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17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_____(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 _____(2000), "『탐라순력도』의 땅 이름",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 _____(2002), "도시와 해양사", 『한국의 해양문화』, 제주해역 편, 해양수산부.
- _____(2004),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제주 지명 연구", 사단법인 제주학회.
- _____(2004),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전라남도(2002), 『전남의 섬』.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1996), 『제주의 옛 지도』.

Abstract

<Tamnado(耽羅圖)> and The Place Name

Oh, Chang-myeong

This research were examined the tentatively named <Tamnado(耽羅圖)> where the whole aspect is opened to the public recently and tries to observe summary against the place name which in this <Tamnado(耽羅圖)> is used. It tried to observe the feature of the map of the tentatively named <Tamnado(耽羅圖)>. He tentatively named <Tamnado(耽羅圖)> to show the place name list which is used, against the feature of place name to observe it tried.

Key Words

Tamnado(耽羅圖), jeju place name, transcribing korean words into chinese characters

교신 : 오창명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33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E-mail : ocmy1@hanmail.net 전화 : 019-696-3646)

최초 투고일 2005. 12. 12

최종 접수일 2006. 1. 27